

# 양돈농가의 보호정책과 양돈경기의 활성화



문 승 현  
(본회 서산지부장  
양돈산업정책추진위원)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지고 모래도 새로워지고 영원히 새로워져야 한다.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는다. 우리의 사고도, 마음도, 행동도 내버려 두면 낡고 썩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고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고하고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것이며, 그래야만이 향상하고 발전하고 성취할 수 있다. 땀흘려 가꾸지 않는 밭에서 열매맺지 않고, 금과 은은 좇지 말고 땅속에서 캐내야 하듯이, 양돈인의 권익도, 양돈산업의 발전도 양돈인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서 쟁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양돈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돕고 협조하는 협동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나 혼자만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도와 가며 사는 협동의 사회다. 나 혼자만으로는 권익보호도, 이윤 추구도 안된다. 협동의 정신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정신이다. 분열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자살 행위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생공영의 협동정신을 가져야 한다.

예전 우리의 선조들은 협동의 정신이 강했다. 어느 집에 초상이 나가거나 잔치가 벌어지면 자기 일하루 그만 두고 백리 길 멀다 하지 않고 가서 도와 주었다. 백리 밖에 살아도 허물없이 오고가던 인정! 지금도 이같이 훈훈한 인정이 우리 주변에 있다. 자신의 통장을 털어 가난한 이웃의 입원비를 마련해 준 구드닥이 소년! 어린이 놀이터의 낡은 시설들을 고쳐준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쓰레기 적화장을 파헤치다 모르고 버린 돈을 주인에게 찾아 준 청소부 아저씨! 오늘날 우리 양돈인들에게 아니 전국민 모두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마음이다.

지금 우리 양돈인은 법 시행령의 예외 조치로 인하여 등록대상 양돈장은 심한 규제를 받아 왔다. 반면, 대기업의 양돈장은 수출과 계열화 및 종돈업의 창구도 모자라 시험사육장이라는 명목으로 사육규모를 늘리는 등 온갖 수단으로 영세 양돈인들의 소득원마저 빼앗아 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

**양돈산업 발전은 바로 나에게 달렸다는 주인정신을 가지고 협동해야 한다.**  
**주인정신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정신이다.**  
**나 개인 한 사람보다 우리 양돈인 모두를 위해서 애쓰는 정신이야 말로……**

”

여기서 우리는 팔짱만 끼고 앉아서 정부의 정책만을 탓하고, 대기업의 횡포만을 원망하는 나약한 양돈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손가락의 힘은 약하지만, 주먹의 힘은 강한 것처럼 우리 양돈인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뭉쳐진 힘은 강한 것이니 우리의 뭉쳐진 힘으로 우리의 권익을 찾아 성실하게 노력해야겠다.

성실은 모든 일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내가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라고 했다. 성실성이 없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반대로 성실성이 있으면 안되는 일이 없다.

우리 성인의 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듯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하늘도 돕는다. 우리 양돈인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성실히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의 양돈장에서 생산된 돈육전량 수출을 의무화 하므로서 우리 농촌형 양돈인들이 안정적으로 양돈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양돈농가 보호정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확신한다.

미국의 사학자 “라이샤워” 교수는 중국이 일본보다 서구의 문명을 일찍 받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뒤떨어진 이유는 일본 민족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개인을 돌보지 않고 하나로 뭉쳐 헌신적으로 일한데 반해, 중국 민족은 지위와 명예만을 집착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제각기 날뛰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와 같은 예를 교훈삼아 우리는 협동해야 한다.

양돈산업의 발전은 바로 나에게 달렸다는 주인정신을 가지고 협동해야 한다. 주인정신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정신이다. 나 개인 한 사람보다는 우리 양돈인 모두를 위해서 애쓰는 정신이다.

90세 된 노인이 후손을 위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 정성이 주인정신이다. 위기속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 백의종군도 마다 않고 왜적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신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이 주인정신이다. 우리는 이같은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겠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노사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노사간의 주인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영자는 근로자가 고용인이 아닌 직장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근로자는 내가 일하는 직장은 다른 사람의 직장이 아닌 바로 나의 직장이라는 주인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노사간의 이같은 주인정신의 결여로 분쟁이 생긴다.

주인정신은 양보의 정신이요, 타협의 정신이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야 한다. 우리 양돈인도 이같은 주인정신을 가지고 희망 찬 양돈업계의 발전을 위해 전진하자. 전진의 에너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한 오늘 새로운 마음의 결의를 가지고 양돈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 하자. 